

제3회 우수편집도서상 심사평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날것의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편집 완성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정 교열이다. 저자와 디자이너에게 주어진 상은 원고의 수준과 역량, 디자인의 콘셉트와 표현 방식 등에 기반한 것이지만 편집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잘 구현되도록 섬세하게 조율하는 작업에 대한 경의까지도 건네는 것이다. 비문을 찾아내고 맞춤법과 맥락에 맞는 단어를 탐구하고 판면 체재와 일러두기, 색인, 주석 등 편집 요소에 대해 고심하는 편집자는 책 뒤에 가려져 있다. 우수편집도서상을 심사하며 더욱 그 가려진 존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졌다.

제3회 우수편집도서상에는 68개 출판사의 137종(성인 108종 아동 청소년 29종)이 접수되었다. 편집자로서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예심 심사위원 5인의 노고를 거쳐 본심에 올라온 책은 6종이었다. 마티의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 보리의 <민물고기 도감>, 승산의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 한울림의 <모두를 위한 환경 개념 사전>, 현암사의 <경주로 보는 신라>, 한길사의 <연행사의 길을 가다>가 그것이다.

6종 모두 장르와 타깃독자에 맞는 교정 상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한 편집 요소들의 조화가 돋보였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한 달 여의 시간을 두고 6종 모두 꼼꼼히 읽고 심사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학술적인 성격이 짙은 2권 짜리 1700여 쪽의 방대한 책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을 한 달 만에 읽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공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책에 쓰인 용어 번역과 서술이나 전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파악하려고 애썼다. 2시간 여 가까이 심사 토론을 마친 후 <민물고기 도감>과 <연행사의 길을 가다>를 제3회 우수편집도서상으로 확정했다.

본심에 올랐던 나머지 4종도 심사위원에게는 책 읽는 기쁨을 안겨주는 편집이 단단한 책들이었다. 책의 특징과 높이 평가해야 할 장점을 기록해두는 것은 그 가치를 오래 잊지 않기 위해서다.

<체르노빌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아니다. 원전사고 지역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광'의 이름으로 찾아간 기록이며 그 관광을 통해 원자력의 미래를 그려보는 특별한 책이다. 생생한 현장 보고서의 성격인 책답게 편집이 역동적이다. 다양한 포맷과 강렬한 색상이 활용되고 있는데 작은 글자 타이포가 얹혀진 부분까지도 가독력이 뛰어난 매력적인 편집이 장점이다. 대표 필자 외에 문학연구가, 영상작가 등의 다양한 칼럼도 함께 편집되어 다크 투어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The Princeton Companion to Mathematics>는 '프린스턴 수학 안내서'라고 인터넷서점 서지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나 책의 어디에도 한국어 번역 제목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전공 연구자의 자문을 통해 매우 훌륭한 수학 관련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김종해 고등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26인의 수학부 소속의 박사들

이 번역을 맡아 오역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공들인 책이었다. 2권은 일반인도 흥미롭게 읽을 산문 성격의 글들이어서 여러모로 뜻 깊고 품위 있는 책이었으나 표지에 한국어 번역 제목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는 가볍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환경 개념 사전〉은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듯 38개의 환경 개념을 175개의 키워드로 풀어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간결하면서도 친근한 사전적 개념 정의로 가독력도 높았다. 전체를 처음부터 읽어도 좋지만 관심 있는 키워드를 먼저 읽고 연쇄고리 형태로 다른 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편집되어 있어, 두꺼운 책의 부담감은 전혀 없었다. 여러 필자와 다양한 자료, 개념 설명 등이 한 권으로 통일감 있게 아우른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노고가 엿보였다.

〈경주로 보는 신라〉는 시각적 흥미를 먼저 느낄 수 있는 편집 제본이 좋았다. 현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덧대어진 그림을 양쪽으로 펼치면 과거의 역사로 독자를 안내하며 역사적인 사료를 곁들여 설명해준다. 학습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역사 그림책이었다. 다양한 편집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만든 읽기 편하고 보기 좋은 책이다.

선정된 두 종은 본심 심사위원의 감탄을 얻었다.

먼저 〈민물고기 도감〉은 보리 출판사의 세밀화도감 20년 역사의 성과다. 이 도감은 입말을 살려 쓴 아주 쉬운 설명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책의 가치만큼이나 매력적이다. 우리 말법에 맞게 어려운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다듬었는데, 이는 편집자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면 난해한 작업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에 사는 어부, 낚시꾼, 오랫동안 강가에서 살아온 이들의 물고기 이야기부터 전문 논문, 북한 자료까지 살살이 모아 다채롭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 설명문을 썼다. 읽기 쉽고 정성스레 편집 디자인된 본문은 쓰다듬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더구나 10년 넘게 민물고기를 그려온 박소정 화가의 노고가 놀라울 정도다. 박 화가는 세밀화 130컷과 생태 삽화 90컷 등 모두 220컷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살아 있는 민물고기를 직접 취재해서 그리기 위해 5년이 넘게 산골짜기부터 큰 강과 논도랑까지 다니는 것은 물론,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작업실에 직접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관찰하였다고 한다. 〈민물고기 도감〉에는 우리나라에 사는 민물고기 130종을 소개한다. 한반도에 사는 고유종 52종이 실려 있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23종과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6종을 모두 소개했다. 우리 강과 민물고기를 지키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연행사의 길을 가다〉는 조선시대 사신들의 여행록을 연구해온 동국대학교 사학과 서인범 교수가 10년에 걸쳐 사료를 검증하고 현지를 답사하면 쓴 역사답사기이다. 사신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으며 조선의 대중국 외교의 본질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살핀 저자 서인범 교수는 여행 전 600여 종에 이르는 〈여행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압록강에서 산해관을 거쳐 북경과 승덕에 이르는 총 2000킬로미터의 사행길을 23일간의 일정으로 걸거나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답사했다.

사행길의 기록을 담당했던 서장관을 등장시켜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흥미로운 형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당대의 기록화, 실측 지도 등의 사료 도판과 함께 답사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 역사 이야기의 생동감을 살려냈다. 철저히 사료에 근거한 전문 연구자의 글이 매우 잘 읽히는 것은 편집자의 교정교열의 공이 포함되어 있다. 답사길 지도와 주요 사진을 차례 앞에 배치하고 일러두기에서 중국의 지명 표기와 화폐 단위, 거리 단위, 용량의 단위 등 표기법을 설명한 점이나 여행 지역을 4개 부로 나누고 해당 지도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한 점,

책의 말미에 사행길 관련 인물을 소개하고 역사 용어 해설을 달아준 점은 독자의 독서를 도우려는 편집자의 배려였다. 본문의 편집 요소를 기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책의 형식과 내용을 어울리게 표현한 점이 큰 매력이다.

우수편집도서상 심사를 마치며 다시 한 번 편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편집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끝.